World Elder Abuse Awareness Day (WEAAD)

Global Symposium 을 다녀와서…

June 15, 2006

김좌겸 (Kim, Jwakyum)

1982 년에 선포된 한국의 경로헌장에는 노인은 국민의 존경을 받으며 노후를 안락하게 지내야 할 분들이라고 공시하고 있으나, 인구의 고령화와 사회구조 및 가치관의 변화로 점차 노후생활이 어렵게 되고 있다. 또한 빠른 속도의 고령화에 비해 노인대책은 미미하고, 급속한 산업화와 핵가족화는 노인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한다. 위험과 무관심 속에 노출되어 있는 노인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제도나 법규범의 제정은 빠르게 변해가는 시류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내가 이 문제와 관련된 심포지엄에 참가해 노인문제 정책의 흐름에 대해 잠시나마 고민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에 대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6 월 15 일. 유엔(United Nations Headquarters)에서 열리는 제 1 회 "세계 노인학대 예방의 날" 심포지엄에 참가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서둘러 뉴욕행 기차를 탔을 때, 내 마음은 무척 설레고 흥분되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나무들과 허드슨강도 나의 기분을 알았는지 덩달아 한껏 푸르름을 자랑하며 아름다운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것 같았다. 기차

안에서는 수퍼바이저 리사선생님에게서 오늘 컨퍼런스 장소인 유엔본부에서 만나게 될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들으며 마음의 준비를 하였고, 내가 현재 실습 중인 Center for Excellence in Aging Services (CEAS) 에서의 다양한 프로젝트들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이 날이 어찌 내가 IAP(Internship in Aging Project) 인턴쉽을 시작한 지 고작 3 일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 있으랴! 얏호~)

드디어 맨하탄에 도착! 올바니와는 다르게 사람들의 빠른 걸음걸이의 모습과 무더운 공기가 맨하탄에서 나와의 첫 대면이었다. 유엔입구의 보안검색대를 지나 심포지엄 장소로 이동하며 장엄한 유엔본부 건물을 천천히 눈에 담았다. 때마침 유엔에서는 “Earth Elders”란 주제로 전시회가 열리고 있었는데, 전 세계 노인들의 다양한 얼굴 모습의 사진 작품들이 인상적이었다. ‘세계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상징하는 보라색 리본을 가슴에 달고, 유엔의 컨퍼런스 룸에 앉자마자 나의 눈에 들어온 것은 이번 행사의 주제인 “My World… Your World… Our World – Free of Elder Abuse” (나의 세상… 당신의 세상.. . 우리 모두의 세상 – 노인학대로부터의 자유) 라는 글귀 였다. 노인 학대에 대한 주제로 전 세계적으로 의식 개혁운동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럽고 가슴 벅찬 일이었다. 이번 행사는 세계보건기구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국제 노인학대 예방조직 (the International Network for the Prevention of Elder Abuse), 그리고 여러 나라의 13 개 기관들이 협력하였고,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스페인, 아르헨티나 등 각국에서 모인 다양한 대표자들이 노인학대 예방의 필요성을 천명하고, 향후에도 발전적으로 협력할 것을 굳게 서로 다짐하였다.

이번 심포지엄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Never ignore elder abuse (절대로 노인학대를 무시하지 말자.)"*이다. 덧붙여 '노인 차별' (ageism, age discrimination)이 대부분 노인학대를 계속 드러나지 않게 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더욱 더 노인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 노인학대는 더이상 무시되어서는 안 될 주제이며, 이번 제 1 회 세계 노인학대 예방의 날 행사를 발판으로 삼아 전 세계적으로 노인 학대에 대한 계몽과 의식개혁을 확대해 나감이 필요하다. 이날의 여러 강연자들 중에서, AARP(미국 은퇴자협회)의 대변인은 재정적 착취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그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재정적 착취는 노인들이 믿고 의지하는 가족이나, 케어기버 또는 가까운이웃들로부터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러한 사기는 점점 더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로부터 우리의 부모들이나 조부모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인학대 예방의식을 높여야 한다고 부연하였다. 또한 나는 그 곳에서 재정적 착취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던 금융관계자도 만나볼 수 있었다.

이번 WEAAD 심포지엄을 통해, 나는 노인학대 이슈에 대해 매우 다양한 기관들이 관심을 갖고 관여하고 있고, 서로 어떠한 형태로든 협력을 도모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또한 이번 행사를 계기로, 노인 학대에 대한 지속적인 의식개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보았다. 심포지엄을 마치고 나오면서 수퍼바이져와 함께 유엔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있을 때였다. 누군가가 우리가 달고 있는 보라색 리본을 보고, “그 보라색 리본은 무엇을 뜻하나요?”라고 질문하자, 곧바로 노인학대 예방의 날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는 수퍼바이져 선생님의 모습에서 노인학대 예방의식은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깨달았다.